

한전 착공 늦어지면 나주 혁신도시 암울

공공기관 이전 눈치보기 여전...정부가 나서야

정부가 세종시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로 옮겨 올 공공기관들은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극심한 '눈치보기'로 계약 체결을 미루는 등 지방 이전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가 하면, 정부는 스스로 약속했던 기반 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등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불안감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운찬 국무총리의 광주·전남 방문을 계기로 정부가 나서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 및 착공을 독려하는 한편, 활성화를 위한 가시화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26일 세종시 수정안 이후 불안해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세종시 발전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과 연구소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혁신도시 조성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버금

가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지원단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파격적인 땅값 인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땅값(3.3㎡당 149만원)의 경우 세종시(3.3㎡당 36만~40만원)에 비해 비싼데다, 위치 등 입지 여건도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에 비해 열악해 광주·전남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반 시설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조성원가를 낮춰달라는 얘기가.

지원단은 현재 4천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현재 조성원가를 3.3㎡당 109만원까지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올 상반기까지 이전 기관들의 부지 매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도시지원단은 특히 상반까지 이전대상 기관들의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하고 올해 청사 신축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는 2012년 일

주 안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연내 공사 착공을 독려하고 이전을 버티는 기관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이전촉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17개 기관 중 5개 기관만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전KDN의 경우 지난해 혁신도시 내 부지(5만6천258㎡)의 25% 예산을 확보하고도 여지껏 부지 매입을 꺼리고 있다. 게다가 당초 398억원의 국비를 투입, 건설키로 했던 혁신도시와 국도 1호선까지의 연결도로(0.89km)는 아직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지원단은 이와 ▲1천600억원에 이르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36만㎡)를 국가가 매입한 뒤 임대하는 방안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특목고·자율형 사립고 우선 설립 기반 조성 ▲세종시보다 획기적인 지방이전기업 인센티브 지원대책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세종시에 견줄만한 혁신도시 활성화대책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겨울나기를 위해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 떼가 먹이를 찾아 논에 내려오고 있다.

/순천만=하태민기자 hagija@kwangju.co.kr

전봇대 없앤 순천만 흑두루미 월동 늘었다

무논 습지 만들고 불빛차단 울타리 등 효과 14년만에 6.6배 증가...작년 탐방객 230만명

겨울나기를 위해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전봇대를 제거하고, 논물 대기 등 경관 농업을 시행한 덕분이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순천만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70여 마리가 첫 출현한 이후 2006년 219마리, 2007년 229마리, 2008년 339마리, 2009년 350마리가 월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만에 겨울을 나는 흑두루미

수가 6.6배나 늘어난 것이다.

올 1월에는 지난해보다 100마리 이상 증가한 460마리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겨울을 보이고 있다. 순천만은 흑두루미 외에도 고니·흑부리오리·저어새 등 130여종 4만여 마리가 찾는 철새의 보금자리가 됐다.

이와 같이 철새가 늘어나자 관광객 또한 급증해 지난 2006년 30만명에 그쳤던 순천만 탐방객이 지난해 230만여명으로 경종 뛰었다.

순천시와 지역 농업인들이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를 비롯해 각종 철새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순천시는 흑두루미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순천만 일대에 설치된 전봇대 280여 개를 제거했다.

59ha 농경지에 경관 농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농경지 2ha에 물을 대 무논 습지로 조성해 철새들이 마음 놓고 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800m 길이의 불빛차단 울타리를 만들어 차량으로 인한 불빛과 소음으로부터 철새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농민 4명이 '철새 지킴이'로 고용해 경관농업지역내 차량과 자전거 통행을 제한하기도 했다.

특히 순천만 일대 농민 33명은 '흑두루미 영농단'을 조직해 경관농업지역내 양수작업, 모내기, 수확작업, 무논습지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해 흑두루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했다. 매년 50여t의 알곡을 모아 매일 400kg씩 철새 겨울먹이로 뿌려주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멀지 않아 1천마리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세종시법 개정 착수...야권 "총력 저지"

정부는 25일 세종시 수정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도도시'로 법률명칭과 도시명칭 등을 변경하는 동시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했으며,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여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입법 예고에 민주당 등 야권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으며 한나라당 친박(친 박근혜) 진영에서도 세종시 완안 사수를 고수,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광주·전남지역 정관계에서도 정부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동반 몰락을 가져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

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호남 경제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고 토로했으며 전남도 고위 인사는 "세종시 수정안 입법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불러 오면서 결국 전남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문태 의원, 정동채 전 장관, 정찬용 전 수석, 주승용 국회의원, 양형일 전 의원,전갑길 광산구청장 등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출마 예정자들도 정부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은 국가균형발전의 붕괴는 물론 지역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금호산업에 긴급자금 2천억 지원 검토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금호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5일 "실을 앞두고 금호산업의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거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담보를 잡고 최소한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자금 규모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설 연휴 전에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자금 규모는 조만간 만기 도래하는 상거래 채무 등을 포함한 2천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채권단이 대우건설 재무투자자(FI)들과 지분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신규 자금이 지원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FI들과 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신규 자금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며 "만기가 도래하는 상거래 채무를 갖지 못하더라

도 당장 금호산업이 부도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익교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를더 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성공하려면 말부터 배워라!

에스디엘 평생교육원 2월 25일 고졸직 스피치과정 개강

저거 수도꼭지 돌려개달릴 추구하는 에스디엘(주) 평생교육원에서 스피치 과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성공적인 직업을 위한 경성스피치 교회는 특별한 전직 네트워크 형성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권리를 위한 과정을입니다. 커리큘럼이었던 능력향상을 통해 성공에는 여러면적 관점을 갖게 하십시오.

- 교육 목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위한 전문 스피치
- 교육내용: 커리큘럼이었던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를 추구하는 커리큘럼
- 교육기간: 2010년 2월 25일(화) - 2월 27일(목)
- 교육장소: (광주)에스디엘

● 교육내용

주제	교육내용	교육목적	교육내용
1회	2월 25일	직업에 맞는 스피치	- 직업 특성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 자기개발을 위한 직업 특성, 직무능력, 직무개발
2회	2월 26일	인간관계 개선-자기개발을 위한 스피치	- DMC 발표(1인)을 통한 자기개발, 발표능력, 직무개발
3회	2월 27일	업무수행 능력-자기개발을 위한 스피치	- 업무 특성을 통한 자기개발 능력 향상 - 발표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능력 향상
4회	2월 28일	신뢰 형성능력 향상-자기개발을 위한 스피치	- 업무 특성, 발표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능력 향상 - 발표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능력 향상
5회	2월 29일	1인간관계 개선-자기개발을 위한 스피치	- 발표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능력 향상 - 발표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능력 향상
6회	2월 30일	직업에 맞는 스피치	- 발표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능력 향상 - 발표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능력 향상

노동부교육원 교육지원
평생교육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학동로 400-11번지 남부W타워 4층
전화 062-714-0800
FAX 062-714-4118